

한전, 전기요금 인상도 송전망 사업도 '난항'

9월 전력판매 마진 1kWh 당 14.9원...국제 유가 상승에 '역마진' 우려 송·배전망 건설사업 지연...주택용 전기요금 오히려 내려야 한다는 여론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재무구조 정상화, 송·배전망 확충 등 현재 주력하고 있는 업무에서 압축을 만나며 난항을 겪고 있다. 한전은 올 2분기부터 2개 분기 연속 영업손실(별도기준)을 기록하고 있고, 한전 매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판매마진이 현상 유지만 하고 있을 뿐 국제 유가 상승 등에 따라 향후 '역마진'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더불어 국가 에너지리플러스터 조성 등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많은 전남 등의 전력을 수요량이 많은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송전망 건설사업 역시 지역민의 반대 등에 부딪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3일 한전이 최근 공시한 '9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9월 전력판매 마진(전력 판매단가-전력 구입단가)는 1kWh(킬로와트시) 당 14.9원을 기록했다. 전력 판매단가는 9월 기준 157.1원, 구입단가는 142.2원이었다.

전력판매 마진은 올 상반기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앞서 올 2월에는 1kWh 당 42.1원, 6월(34.9원)을 기록했지만, 지난 7월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전력 생산비 상승에 따라 구입단가가 높아지면서 마진은 8.2원으로 급락했다. 이후 8월(16.7원), 9월(14.9원) 등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전은 전력망 유지보수 및 설비투자, 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전력판매 마진이 22원은 돼야 순마진이라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한전 전체 매출에서 전력판매마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하지만 지난 7월 마진 급락 이후 3달 연속 기준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력판매 마진이 손실구간에 돌입, 3분기 한전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앞서 한전은 올 3분기 연결기준 5조 9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연결기준 재무제표는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를 비롯해 한전 계열 주요 회사 60개사의 실적을 종합한 것으로, 한전 자체의 실적을 기록하는 별도기준 재무제표 상으로는 한전은 올 2분기(-928억원), 3분기(-7737억원) 등 2개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손실폭도 전력판매 마진 감소분만큼 확대되고 있다.

또 한전은 40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주요 목표를 전기요금 인상으로 삼았지만,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할 정부는 올 상반기 3%대에 달하는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국민 부담이 심화될 것을 우려, 산업용 외에는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실제 최근 한전이 실시한 '전기요금 소비자 인식조사 측정연구' 자료에서도 주택용 전기요금은 내려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던 만큼, 대대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 산업단지 조성 등에 발맞춘 송·배전망 확충 사업 역시 지자체 및 지역민과의 의견을 좁히지 못해 평균 4년 가량 지연되고 있다.

당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이 높은 전남 등지에서 수요량 대비 전력 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으로 전력을 옮겨야 할 송전망의 경우 신장성S/S, 득량S/S 등은 지역민들의 반대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짧게는 2년 6개월부터 길게는 7년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농어촌공사, 대한건설협회와 농어촌 건설 입찰서비스 개선 협약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일 나주시 빛가람동 본사에서 대한건설협회와 '농어촌 건설분야 민간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농어촌 건설분야의 입찰서비스 개선 및 민간 경쟁력 강화, 상호 공동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입찰 관련 주요기준 개선에 대한 민간의 의견수렴 기회 확대, 기관 간 심사자료 온라인 연계를 통한 입찰 간소화 및 투명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대한건설협회의 풍부한 건설 경험이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 핵심사업에 내실을 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ATF서 미디어 콘텐츠 기술 전파

과기부와 3개 작품 공동관 운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2024년 Asia TV Forum & Market(ATF)'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연계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기술들을 선보인다.

ATF는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시장 최대 규모 콘텐츠 행사로, KCA는 이번 행사에서 국내 우수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등의 해외 유통 촉진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한국 콘텐츠와 인공지능(AI) 디지털 미디어 테크

기술들을 전파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 KCA와 과기부는 3개 작품의 공동관을 운영하고, 기업들과 1: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네트워킹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공동관 운영 행사는 오는 6일까지 진행되며, ATF 행사기간 중 '마리나 베이 엑스포'에서 상시 운영한다. 공동관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AI 기술을 전세계 국가 관객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도어', 'AI 잔혹동화', '귀집'을 공개 상영한다.

또 비즈니스 매칭 지원으로 선정된 한국 콘텐츠 3개 작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

램을 운영한다. '대문밖은 사과리', '림자면옥-최후의만찬', '크래시' 등의 프로그램들이 현지 투자자 및 바이어와의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오는 5일에는 국내 우수 기획안 5편을 만나 볼 수 있는 쇼케이스도 펼친다.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은 "이번 ATF 연계 행사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한국 콘텐츠의 인지도 제고와 더불어 더 많은 글로벌 팬층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하여 한국 콘텐츠의 해외 유통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사학연금, 비급여 진료 지급범위 확대

재활·물리·한방치료 등 무조건 지원...요양급여 실효성 강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지난 1일부터 '특수요양비용 산정기준'을 개정, 시행했다. 이는 의료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고, 재해 교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비적용 대상인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교직원들은 담당 의사가 진단해 처방한 검사요금과 재활·물리·한방치료 등에 대한 상한액 및 횟수에 제한없이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교직원이 입원 중인 경우에는 입원 시작일부터 소득 적용도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도 비용이 지원되지 않던 '로봇수술'에 대해 향후 통상적인 요양급여 항목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직무상 재해를 입

은 교직원이 직무 복귀하기 위해 의수 또는 의족이 필요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사학연금 교직원이 직무상 재해로 인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용 부담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며 "재해 교직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해상보상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재해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학연금은 지난해부터 특수요양급여비용 일부개정을 통해 담당 의사 처방 치료 목적으로 주사제·약제를 투여했을 경우 이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한전KDN, 직무 중심 채용 진행 '블라인드 공정채용 인증서' 취득

공정한 채용 노력 인정 받아

한전KDN이 최근 한국표준협회로부터 '블라인드 공정채용 인증서'를 취득했다.

블라인드 공정채용 인증제도는 기업 채용과정에서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공정한 채용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전KDN은 기업 특성을 고려한 ▲메타버스 채용설명회 ▲MZ세대 채용 면접관 양성 ▲사내 여성채용 전문 면접관 등 채용 과정에서 전문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편견적 요소를 배제한 채용 실적과 운영체계 상 공정성 보장 등을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한전KDN은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도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5년 연속 취득·유지하는 등 채용운영과 성과 등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 준수에 주력하고 있다.

한전KDN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그간의 공정채용에 대한 성과와 노력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력계열사 가

운데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갖고, 공정한 채용과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결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